

고품질 과일출하 위한 관리기술 제시

농진청, 사과·배·단감·감귤 재배농가 조류퇴치 장비·포획트랩 등 설치

추석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과수농가에서는 고품질 과일출하를 위한 막바지 관리와 수확준비가 한창이다.

농촌진흥청은 과일유류량이 가장 높은 명절 상수기에 맞춰 출하를 예정한 사과·배·단감·감귤 재배농가가 참고할 관리기술을 핵심어로 제시했다.

공통적으로 과수농가에서는 수확을 앞두고 조류피해 예방을 위해 방조망이나 조류퇴치장비, 포획트랩 등을 설치해 새가 과일을 쪼아 먹거나 손상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

사과는 색깔이 중요하며 햇빛이 사과나무 아래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웃자란 가지 등 복잡한 가지를 정리해야 하며, 과일에 달린 잎이 빛을 가리고 있으면 따주는 것이 좋다.

특히 수확하기 20일~30일전에 반사 필름을 과원 아래에 깔아 과일 전체에 골고루 빨강계 색이 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저장용과 즉시 유통할 사과는 수확시기를 달리해야 하는데 저장할 사과는 일찍 따고, 바로 판매할 것은 최대한 완숙기에 가까운 때에 수확한다.

배는 분산수확이 중요하며 한 나무 안에서 과일이 달린 위치에 따라 익은 정도의 차이가 있으므로 나무가(수관) 외부의 큰 과실부터 3일~5일 간격으로 2회~3회 나눠 수확하면 균일한 품질의 과실 수확이 가능하다.

단감은 익은 정도를 색깔로 나타낸 색상표(컬러차트)를 활용해 열매꼭지 부분(과경부) 색깔이 기온이상이고, 색이 균일한 과일을 수확하는 것이

좋다. 추석이 출하하는 시설(비닐하우스)재배 감귤은 기본 이상의 당도가 보장되기 때문에 1차~2차로 나눠 선별작업을 하면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유승오 과장은 "올해는 추석이 예년보다 늦기 때문에 과수농가가 출하 전 관리를 잘 하면 고품질 과일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며, "색깔과 향, 당도 등 속기에 맞는 맛있는 과일을 생산하는 것이 우리과일의 소비를 확대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는 최근 잦은 비가 오고 있지만 사과, 배 등 추석 대목 주요 과일류의 생육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7월 무더위로 인해 과가 작은

경향을 보이는 곳이 많지만 올 추석이 늦게 자리 잡혀 있어 과가 자라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산지에선 보고 있다.

또한 당도는 비교적 양호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여름철 풍부한 일조량과 일교차로 인해 사과와 배, 단감 등 주요 재수 품목의 당도가 올라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최근 잦은 비가 본격적인 수확철에 접어들어 9월 까지 이어질 경우엔 당도 유지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미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과일과채관측팀장은 "수확기를 앞둔 9월 태풍 등 기상 변수가 아니라면 올 추석 주요 과일류 품위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추석이 늦어 물량이 많을 것으로 보여 어느 추식보다 고품위 중심의 생산 및 출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이스타항공, 얼리버드 이벤트 진행

1일부터 7일까지... 항공권 특가 운임 제공

이스타항공이 9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2018년도 1월 항공권에 대한 특가 운임을 제공하는 얼리버드(Early Bird)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특가 항공권의 탑승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간이며, 국내선 4개 노선, 국제선 15개 노선에 대해 이벤트 기간 동안 특가로 판매한다. 국내선은 김포-제주, 청주-제주, 군산-제주, 부산-제주 등 4개 노선에 대해 편도총액운임 최저 1만 1,200원부터 판매된다. 일본노선은 편도총액운임 최저

10만3,000원부터 13만8,000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얼리버드 특가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스타항공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과 앱에 확인 및 예약이 가능하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얼리버드 이벤트는 매달 1일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미리 여행을 계획하는 고객들에게 인기 있는 이벤트 중 하나"라며, "이번 이벤트를 통해 2018년 새해 여행을 계획해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건보 전주남부, 반부패·청렴실천 거리캠페인 실시

국민건강보험 전주남부지사는 31일 지사 인근 거리에서 청렴문화 확산과 반부패·청렴실천 거리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지사장과 직원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캠페인에는 현수막과 어깨띠를 두르고,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청렴문화 확산과 공익신고

제도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김왕수 지사장은 "우리 공단은 2년 연속 정부청렴도 평가에서 매우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며 "앞으로도 이에 만족하지 말고 청렴하고 투명한 윤리 경영 실천으로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인재용 기자

LH 전북, 군산경제 활성화 위해 팔걸고 나선다

군산지역 임대주택 특별공급방안 확정·발표

LH 전북본부가 현대조선소 폐업으로 휘청거리고 있는 군산경제 살리기에 팔을 걷고 나섰다.

31일 LH 전북본부에 따르면 산북부향 등 군산시 소재 12개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입주자격 완화 및 임대조건 동결(일부 보증금 50% 인하) 등을 포함한 '군산지역 임대주택 특별공급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LH의 특별공급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대규모 해고와 협력업체 줄소산 등으로 군산

지역의 상권 및 임대주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와중에 본격 시행되는 것이어서 가뜩이나 어려운 실정자 및 주거취약계층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군산국가산단 인근에 있는 산북부향 3차, 4차의 경우 임대보증금을 최대 50%까지 인하했고, 입주자의 선택에 따라 인화된 금액으로 전세형으로 입주할 수 있으며, 내부 리모델링 작업도 병행 추진하는 등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이번에 저렴한 조

건으로,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옮길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이파트 내부 리모델링은 산북부향 1-4차 단지 내에서 시행하며, 리모델링 작업을 끝낸 샘플하우스 1호는 4일에, 그리고 16호는 20일에 순차 개방할 예정이다. 위 산북부향 3, 4차보다 시설이 비교적 양호한 군산시내 10개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종전에는 여러 입주자격을 까다롭게 심사하던 것을 대폭 간소화해 소득초과에 따른 할증부분만을 적용함에 따라 소득, 총자산, 주택소유 여부 등에 상관 없이 누구나 선착순 입주할 수 있다. 이번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또한

인상없이 종전대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주거대책의 시행으로 LH는 '정부의 군산조선소 지원대책'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첫번째 공기업이 됐으며, LH는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건립주거지원 등 군산시 주거안정망 구축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특별공급을 받고자 하는 군산시민은 누구나 LH 군산임대상담실(산북부향 1차 108호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 청약센터(www.lh.or.kr)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인재용 기자

전북은행, 문화가 있는 날 공연 개최

전북은행은 오는 27일) 오후 7시 분점 3층 대강당에서 전북은행과 함께 하는 제11회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전북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 '엔터테인먼트'의 식전공연과 다양한 타악공연 및 퓨전국악 등 전통문과 콘텐츠 발굴과 제작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마을의 '국악유희콘서트'로 펼쳐진다. 국악유희콘서트는 패지나칭칭, 뱃노

래, 난감하네, 아리랑 등 평소 자주 접했던 음악들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대금, 피리, 태평소, 해금 등 다양한 악기들을 활용해 새롭게 흥미로운 퓨전국악 공연을 선보일 계획이다.

공연관람은 8세 이상 전북도민 누구나 무료로 가능하고, 접수는 9월 17일까지 전북은행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 및 단체접수는 전북은행 사회공헌부 250-7154로 문의하면 된다. /인재용 기자

농어촌공 전북, 청렴윤리 교육 실시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31일 본부 대강당에서 전북관내 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분사 정종민 감사관을 초청해 청렴윤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조직 내 반부패,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수 등 근절을 통해 공직사회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수 등 금지법에 관한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공직자가 지켜야 할 올바른 방향과 자세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김준채 본부장은 "잔존하고 있는 부패에 대해 철저히 구분하고, 항상 공직자로서의 깨끗하고 바른 생활을 실천해야 한다"며,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 지역사회와 국민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공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한은 전북본부, 중소기업 추석 특별자금 지원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추석을 앞두고 단기운전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100억원 한도 내에서 추석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추석 특별자금은 도내 금융기관 각 영업점이 오는 4일부터 29일까지 취급한 대출에 대해 일체당 2.5%

원(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 5억원) 이내에서 1년간 지원하게 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번 특별자금 지원으로 추석을 맞아 자금수요가 늘어나는 도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완화 및 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주매일 www.jjmaeil.com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 **서부신시가지 도형열**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
-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